

# 1980년대 여성해방운동과 번역의 역설

허윤\*

## 〈차례〉

1. 1980년대 여성해방운동과 ‘제2의 물결’의 번역
2. 교양교육 운동으로서의 여성해방이론과 에세이의 수용
3. 계급 운동으로서의 여성해방이론과 편역서의 기획
4. 민족해방 운동으로서의 여성해방이론과 ‘제3세계’의 기획
5. 맺음말: 여성해방운동의 (탈)식민성

## 〈국문초록〉

이 논문은 번역서를 통해 1980년대 한국 여성해방운동의 탈식민성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80년대 여성해방운동은 ‘제2의 물결’의 영향권 하에서 출발한다. 이때 영미의 여성해방이론은 수용해야 할 전범인 동시에 부정해야 할 타자로 기능한다. 이로 인해 여성해방이론의 번역은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모방과 오염이 일어나고,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이 생겨나는 혼종성의 공간이 된다.

교양교육의 일환으로 전개된 여성학 강좌에서는 에세이와 같은 가벼운 읽을거리를 교재로 사용한다. 이는 학습자의 눈높이와 생활환경 등에 맞추어 여성학적 문제의식을 품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에세이류의 번역서는 의식 각성의 계기를 제공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여성해방운동 진영에서 번역을 기획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변혁 운동 진영에서는 필요에 따

\* 이화여자대학교 박사수료

라 여성해방운동에 관한 편역서를 펴내는 등 번역의 수신자가 오히려 발신자가 되는 기획을 진행한다. 발신자와 수신자의 위치가 뒤섞이고 역전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마르크스주의, 제3세계라는 또 하나의 보편을 획득하기 위한 기획 속에서 탈구된다. 순수와 비순수의 구도는 원본-가짜의 이분법을 무한히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제3세계 여성을 낭만화, 전형화함으로써 운동의 도구로 소비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탈식민적 극복을 전제로 한 한국의 여성해방운동이 다시금 이분법적 구도로 환원되는 역설이 편역서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핵심어: 번역, 1980년대 여성해방운동, 제2의 물결,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이론, 혼종성

## 1. 1980년대 여성해방운동과 ‘제2의 물결’의 번역

1975년 크리스찬아카데미<sup>1)</sup>는 『여성인간선언』을 통해 여성운동을 문화개혁과 인간해방운동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여성운동의 과제는 민주화 달성과 여성노동의 사회화에 있다고 선언하였다. 민주화라는 한국의 특수한 주제와 여성노동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결합한 것이다. 크리스찬아카데미의 대표 강원용 목사는 “여성운동은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위한 인간화 문명의 창조운동(93)”이며 “전체 인간해방운동에서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94)”고 천명한다.<sup>2)</sup> 이 선언은 UN의 세계 여성의 해(1974년) 지

- 
- 1) 여성단체 실무자와 간부, 노동자, 농민, 주부 등 각계각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크리스찬아카데미의 중간집단교육은 10년 동안 총 1,500여 명의 이수자를 배출하여 여성운동의 인적 토대를 구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활동은 1979년 ‘크리스찬아카데미 사태’를 계기로 폐지되었다. 당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인령(산업사회 담당, 노동자교육), 2년 4개월간 실형을 살고 1981년 광복절 특사로 나온 한명숙(여성사회 담당) 등은 현재 여성운동 및 학계의 주요 인물들이다.
  - 2) 크리스찬아카데미 편, 『여성문화의 도전』, 삼성출판사, 1975. 교수, 종교인 등 크리스찬아카데미의 다양한 관계자들의 기고문과 유엔 여성선언 등의 자료를 첨부한 책으로, 주요 필자로 윤후정, 이효재, 강원용, 이태영 등이 있다. 전체 기조는 1974

정에 자극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여성의 인간화와 그에 따른 인간해방 운동을 연표한다. 그렇다면 UN은 왜 1970년대 중반,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였을까. 이는 196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까지 전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제2의 물결’의 성과라 말할 수 있다.

‘제2의 물결’(2세대 페미니즘)은 섹스와 젠더의 이분법을 바탕으로, ‘여성’은 정체성일 뿐 아니라 정치적 범주라고 주장하였다. 여성억압이 사회 구조적으로 생산되었음을 밝히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섹슈얼리티, 가족, 노동, 재생산권, 법적 불평등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법적,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획득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다.<sup>3)</sup> 이러한 ‘평등’의 제는 한국사회에서 “인간화”로 번역된다. 민주화, 신식민, 반독재 등 한국 사회의 정치적 요구가 남녀 사이의 평등을 전체 해방운동의 맥락으로 전치하여 “인간화”로 명명한 것이다. 이처럼 1980년대 여성해방운동은 영미의 여성해방이론을 번역, 실천하는 과정과 더불어 진행된다. 그 출발점에서부터 번역과 식민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여성해방운동에 있어 1980년대는 운동의 역량을 확산시키고 운동 장(場)을 정립하는 단계였다. 1970년대의 노동자 운동, 1980년대의 학

---

년 유엔 지정 ‘세계 여성의 날’의 흐름과 더불어 한국 여성의 현실을 점검해보고, 여성운동과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논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의 성격에 따라 각 글의 논의 격차가 상당하다. 특히 번역문과 기고문 사이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진다. 3부에서는 20세기 성의 사회학이라는 주제로 낙태권과 성 해방 등 미국 급진적 여성해방론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네 편의 번역문을 실는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를 번역한 것이다. 반면 강옥구는 『스타시노폴로스의 탈여권론』을 통해 『여자다운 여자』라는 책을 소개하며 케이트 밀레트를 위시한 우먼스 리브(여성해방운동)을 비판하고, 모성을 통해 여자다운 여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세기(『공정적인 한국여성문화의 개발』)는 모성이나 남존여비 삼종지도는 강요된 것이 아니라 한국여성의 ‘자발적 인고이자 집요한 애정’이며 이를 ‘공정적인 한국 여성문화’로 명명하기도 한다. 이 간극은 수입된 이론과 한국 현실 사이의 낙차를 노출한다. 이론의 번역과 그 적용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3) 이나영, 『급진주의 페미니즘과 섹슈얼리티』, 『경제와 사회』 82호, 2009년 여름호, 10~38쪽.

생 운동 안에서 축적된 힘을 바탕으로 ‘여성’노동자, 여성활동가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1983년 여성평우회, 1987년 여연 등 다수의 여성운동 조직이 출범하였다. 또한 여성학이 대학 내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으며, 학문적 생산 역시 활발해졌다. 바야흐로 사회운동으로서 여성해방운동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것이다.<sup>4)</sup> 여성해방운동이 사회운동으로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운동의 의제를 이해하고 정립하여 대중화하는 작업이 요청되었다. 여성해방운동은 왜 필요한가, 여성억압의 기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이 작업을 위해 학교, 운동 조직, 세미나 등 곳곳에서 이론의 번역작업이 진행된다. 특히 출판시장이 확대되고 개인주의적 독서대중<sup>5)</sup>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책이 등장한 1980년대는 ‘번역 붐’이라고 불릴 만큼 번역서의 출판이 늘어났다. 그러나 이 작업은 서구의 이론을 이식해서 한국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여성해방운동에서 번역의 역할이 중요했던 만큼, 발신자인 서구(특히 미국)에 대한 대타의식 역시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서구의 이론과 한국 현실이 다를 수 있다는 입장에서부터 영미의 여성해방론을 배격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이 모든 것을 꿰뚫는 공통 감각은 한국의 특성과 지형에 맞는 여성해방운동 방법론을 모색해야 한다는 탈식민적 의식이었다. 이는 호미 바바가 말하는 ‘제3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호미 바바는 문화의 번역을 통해 모방과 오염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권위의 새로운 구조와 새로운 정치적 주도권을 설정”<sup>6)</sup>하는 제3의 공간

4) 민족민주운동연구소 여성분과, 『80년대 여성운동과 90년대 여성운동의 전망1』, 『정세연구』 9호, 1990, 97~106쪽; 민족민주운동연구소 여성분과, 『80년대 여성운동과 90년대 여성운동의 전망2』, 『정세연구』 10호, 1990, 46~75쪽 참조.

5) 김혜정은 1970년대까지의 독서를 국가 주도의 국민교양운동이었다면, 1980년대 이후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책을 읽는 개인주의적 독서대중이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60~70년대 자유교양대회를 경험한 1세대 교양독서시대 독자들이 1980년대 대학생이 되어 의식 있는 지식인으로서 정권을 타도하는 민주화 투쟁세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김혜정, 『독서대중화 운동의 역사적 전개과정 검토』, 『독서연구』 27, 2012, 9~41쪽.

6) Homi Bhabha, “The Third Space”, *Identity: Community, Culture, Difference*,

이 탄생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1980년대 여성해방이론의 번역 양상을 고찰하는 데 좋은 참조점이 된다. ‘제2의 물결’이 상징하는 억압, 가부장제, 여성 등의 개념은 유교적 가부장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노동자 권리의 쟁취 등 한국 현실과 만나 뒤섞인다. 이 제3의 공간에서는 근원적인 통일성이나 고정성 대신 정치적 변혁이나 재역사화가 가능하다.<sup>7)</sup> 따라서 1980년대의 여성해방이론에서 번역 역시 이러한 혼종성의 관점에서 살펴 보아야 한다.

본고는 번역서를 통해 1980년대 한국 여성해방운동의 탈식민성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을 1980년대 발표된 번역서로 한정하여 목록화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sup>8)</sup> 이 분류를 바탕으로 번역서를 통해 드러나는 여성해방운동의 특성과 번역서의 수용과 기획이 여성해방운동과 길항하는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이는 1980년대 여성해방이론에서 번역=식민성의 도식을 넘어서 번역이 가지고 있는 혼종적 생산성의 측면을 조망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 2. 교양교육 운동으로서의 여성해방이론과 에세이의 수용

1980년대 여성해방운동을 논하는 데는 여성학 강좌의 개설을 빼놓을 수 없다. 초기 여성학은 교양강좌의 일환으로 개설되어 다양한 조류의 여성해방론을 소개하는 동시에 한국 현실을 검토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였

London: Lawrence and Wishart, 1990, pp.207~221.

7) 호미 바바, 『문화의 위치』, 나병철 역, 소명출판, 2002, 91~93쪽.

8) 1980년대 여성해방운동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한 쪽을 진보적 사회단체들과 연대하는 여성운동단체, 다른 한 쪽을 독자적으로 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후자에 속하는 <또 하나의 문화>는 영미 여성해방이론의 한국적 적용을 시도하며, 중산층이나 지식인 여성의 가족, 직장 등에서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논의의 초점을 번역을 둘러싼 수용과 기획에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번역서로 연구대상을 제한하였으며, 그로 인해 번역물의 빈도가 10% 미만인 동인지 『또 하나의 문화』은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다. 각 학교의 여성학 강의안은 가벼운 읽을거리를 통해 여성의 현실과 해방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한국 현실에 맞게 적용시켜보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비교적 초기부터 서구의 여성학을 강하게 의식했으며, 식민성의 문제를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9)</sup>

1978년 처음으로 여성학 강좌가 개설되었을 때 주요 대상으로 삼은 것은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자유주의 여성해방론이었다. 이후 급진주의 여성해방론, 사회주의 여성해방론, 유물론적 여성해방론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번역, 소개된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걸쳐 케이트 밀레트(1976), 베티 프리단(1978), 줄리엣 미첼(1980) 등이 약 80여 권 가량 번역되는 것이다.<sup>10)</sup> 이 번역서들은 분과학문으로서 제도화되기 시작한 여성학 과목의 강의안과 참고문헌에 반영되어 여성학 페다고지를 개발하는데 바탕을 이루었다.

저자	제목	번역자	출판사	출판년도	사용학교
C. 다울링	신데렐라 콤플렉스	홍수원	우아당	1982	숙명, 이화, 성신
		이미순	영광출판사	1987	서울여, 서강, 한신
		김영만	을유문화사	1991	한외
마가렛 미드	남성과 여성	이경식	범조사	1980	서강, 한신, 숙명 이화, 성신, 한외
시몬느 드 보봐르	제2의 성	이용호	백조서점	1955	숙명, 이화, 성신 서울여, 서강
		조홍식	을유문화사	1974	
		윤영내	자유문화사	1977	
케이트 밀레트	성의 정치학	정의숙	현대사상사	1976	서강, 숙명, 이화

9) 서광선, 『한국여성연구원, 그 출발 이전과 이후: 한 증언』, 『한국여성연구원30년: 1977~2007』,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08.

10) 대한민국 출판물 총목록(국립중앙도서관 발행, 1980~1990), 여성관련문헌종합목록(1988년 6월말 현재 국회도서관 속대 서울여대 효성여대 도서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 등 여성 관련 주제 분야의 단행본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등 6,320권(한국서 2751 일서 1103 양서 2466)), 여성관련문헌해제서지 1945~1984(여성관련분야 단행본 총 3239권에 대한 해제서지, 동양서 국내단행본 546권 학위논문 939 일서 425 합 1910권), 『여성연구』(1984년 겨울호 여성학 강좌용 참고도서 목록), 『한국여성학』(1~3집, 1985~1987) 등 6개의 목록을 종합하여 대략적인 목록을 완성한 바, 80여 권 정도로 한 정할 수 있었다.

		조정호			성신, 한외
줄리엣 미첼	여성 해방의 논리 (여성의 지위)	이형량 김상희	광민사	1981	서강, 한신 한외, 이화
해밀턴	여성해방논쟁	최민지	폴빛	1982	서강, 한신 서울여, 한외
재거 공편	여성해방 이론체계	신인령	폴빛	1983	서울, 이화 서강, 서울여
베티 프리단	여성의 신비	김행자	평민사	1978	숙명, 한외, 한신
술라미스 화이 어스톤	성의 변증법	김예숙	폴빛	1983	이화, 한신, 서강
베벨	여성과 사회	선병렬	한밭	1982	서울여, 서강 청주
다나카 미치코	미혼의 당신에게	김희은	백산서당	1983	이화, 서강, 한신

<표 1> 1980년대 중반 각 대학 여성학 강좌에서 사용된 젠더이론 번역서 일람<sup>11)</sup>

총 10개 학교의 커리큘럼을 비교해보면,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된 번역서가 『제2의 성』이나 『여성의 신비』와 같은 여성학 고전이 아닌 콜레트 다울링의 『신데렐라 콤플렉스: 여왕심리의 갈등』<sup>12)</sup>(7학교)임을 알 수 있다. 자립적이었던 여성이 재혼과 전업주부 생활을 통해 자신 안의 의존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이 에세이는 미국 중산층 지식인 여성의 내적 갈등을 솔직하게 고백하였다. 학습자인 대학생들이 동일시할 수 있는 대상의 자기 고백적 서사를 통해 여성학적 문제의식에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학문적 연구서보다는 가벼운 수

11) 1984년 창립된 한국여성학회는 학회지 『한국여성학』의 1~3집(1985~1987년)을 통해 서울대, 이대, 숙대, 서강대 등 총 14개 학교의 여성학 관련 과목의 강의안과 참고문헌을 소개한다. 그 중 연대, 충북대를 비롯한 네 개 학교는 참고문헌 없이 강의안만 수록하였으므로 논의에서 제외한다. 두 곳 이하에서 사용되는 번역서의 경우 표에 넣지 않았다.

12) 『신데렐라 콤플렉스』의 부제는 다양하다. 홍수원 번역의 우이당 판은 ‘여왕심리의 갈등’, 김영만 번역의 을유문화사 판은 ‘자립을 망설이는 여성들의 고백’, 이호민 번역의 나라원 판은 ‘여자들의 갈등심리’로 되어 있다. 원서의 부제는 ‘여성들이 가진 독립에 대한 숨겨진 공포(Women’s Hidden Fear of Independence)’이다. 이를 우이당 판에서는 ‘여왕심리’라고 번역함으로써 독립에 대한 공포를 ‘여왕심리’와 등치시키고 있다. 이는 남성에 대한 의존심리를 여왕심리라고 분석하여 젠더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책 본문의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기나 에세이가 더 적합하다. 『미혼의 당신에게』와 『무엇이 여성해방인가』 역시 『신데렐라 콤플렉스』의 연장선상에 놓인다.

『미혼의 당신에게』(1979)는 일본의 정치학자이자 중의원을 지낸 다나카 미치코<sup>13)</sup>가 미혼인 여대생들과 나눈 상담과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엮은 책이다. 서양의 성 개방 문화가 도래함에 따라 성관계와 피임, 결혼 등 실질적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상담하고 있는 것이다. 서강대와 서울여대에서 참고문헌으로 제시하는 『무엇이 여성해방인가』 역시 여성 저널리스트 마츠이 야요리<sup>14)</sup>가 우먼리브(WLM의 일본식 약어)의 영향을 통해 일본 현실을 돌아보고, 아시아의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 논한 입문서이다. 마츠이는 일본 남성들의 가부장적 태도와 기생관광, 아시아 각지의 성매매 문제 등에 대해 고발하며 이를 자본주의의 확산에 따른 병폐로 지적하고 있다. 여성해방운동은 단지 그 자체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 산적해 있는 인종차별, 식민지국가의 민족해방, 공해, 복지, 전쟁범죄 등 모든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한 투쟁과 궤를 같이 해야 하며 그러한 모순점들이 해결된 사회가 건설된 후부터 본격적인 여성해방운동이 시작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에세이라는 저널리즘의 가벼운 외피를 입었지만, 실제 그 내용은 아시아 지역 여성해방이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권의 번역서는 모두 미국의 ‘우먼 리브’와 성 해방 문제를 아시

13) 田中美智子. 일본 중의원을 5회, 15년간 지내고 은퇴한 정치가이자 공산당원.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의료비 문제와 여성노동자 30세 정년 문제, 남녀임금격차 문제 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저서로 『未婚のあなたに』, 學習の友社, 1979年; 『若い日々のために-性・モラルそして愛』, 學習の友社, 1981年; 『女は度胸』, 學習の友社, 1989年 등이 있다.

14) 松井やより. 아사히신문 논설위원이자 저널리스트. 2002년 <전쟁과 여성에의 폭력> 일본 네트워크를 설립했으며 2002년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미국·푸에르토리코의 네트워크>에 일본대표로 참가하였다. 저서로 『女性解放とは何か』, 未來社, 1975年; 『女たちのアジア』, 岩波書店, 1987年; 『アジア・女・民衆』, 新幹社, 1988年; 『グローバル化と女性への暴力』, インパクト出版會, 2000年 등이 있다.



아직 시각에서 차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서구에서 출발한 여성해방이론을 아시아 국가인 일본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화두인 셈이다. 이를 한국에서 다시 수입, 번역하여 학습자인 대학생들이 아시아 여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실제로 기생관광이나 데이트 폭력 등 한국 현실에 가까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장점도 있다.

에세이 형식의 가벼운 번역서들이 문제의식을 공감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운데, 여성학 과목에서 중요시되는 현상 중 하나는 역할 모델을 발견하는 것이다. 긍정적 삶을 살아간 여성모델을 발굴, 소개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 인물이 마가렛 미드이다. 마가렛 미드의 『남성과 여성』은 여성학 과목에서 자주 사용된 참고문헌 중 하나이다. 이 책은 인류학자인 마가렛 미드가 원주민 사회를 통해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남성성과 여성성이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역할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지, 성차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마가렛 미드의 이론에 대한 높은 관심은 관찰과 보고라고 하는 인류학의 과학적 방법론이 여성학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한다.<sup>15)</sup> 또한 그녀의 삶이 여성 학자로서 여대생들에게 긍정적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서울여대에서는 마가렛 미드의 자서전을 참고문헌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여러 곳의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번역서들은 실상 본격적인 여성해방이론서라기보다는 여성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여성해방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서적들이다. 일상에서 가까운 지점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문제의식을 키워나갈 수 있는 비판능력을 갖추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물론 여성학 강의안에는 케이트 밀레트, 줄리엣 미첼, 베티 프리단 등 ‘제2의 물결’을 대표하는 이론서적들도 포함되어 있다.<sup>16)</sup> 여성해방이론의

15) 이 책의 번역자 이경식은 후기에서 미드의 연구는 “국민성 연구”라 할 수 있으며 인간학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후기의 대부분은 인간학으로서 인류학, 미드 소개, 인류학 소개 및 분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류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다양한 사조를 학습하며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처럼 대학의 교양과목으로서의 여성학은 영미권의 해방된 여성들, 여성해방이론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한국적 현실에 적용시켜보는 과정을 통해 여성해방의식의 토대를 닦는다. 아시아의 여성들이 영미의 이론을 수입, 번역하고 학습하는 것은 수용의 과정에서 불가피한 현상이 된다. 더욱이 주로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여성교수들이 억압, 가부장제, 여성 등의 개념을 이론화하려고 시도할 때, 이들이 기대고 있는 것이 영미의 여성해방이론이기 때문에, ‘서구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sup>17)</sup>

### 3. 계급 운동으로서의 여성해방이론과 번역서의 기획

1980년대 여성해방운동은 한국 사회 전반의 운동진영의 영향을 받는다. 이로 인해 특정 이념이 조직구성의 원리로 자리 잡게 되며, 당면 과제를 설정하는 데에서도 늘 이념적 원칙을 중시하게 된다.<sup>18)</sup> 특히 학생운

16) 공유한 문제의식을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자유주의, 급진주의의 여성해방론의 번역서들을 참고문헌이 사용된다. 고전인 베벨의 『여성과 사회』나 엥겔스의 『가족의 기원』에서부터 앨리슨 재거와 폴라 스트럴이 다양한 여성해방 사상의 조류를 정리해 편집한 『여성해방의 이론체계』도 여러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다.

17) 실제로 『또 하나의 문화』 창간호를 보면, ‘서구적’ 여성운동이라는 비판에 대한 고민이 녹아 있다. 조옥라는 이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는 한동안 ‘전통적’이란 것은 모두 나쁜 것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더니 요즘 와서는 ‘서구적’이라는 명목으로 매도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며 “외국에서의 경험이 사회를 좀더 객관적으로 보는데, 그리고 이 운동이 취하는 방향과 방법에 있어 좀더 다양한 대안을 갖게 한 면에서 보탬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답한다. 조혜정은 “이 모임(또 하나의 문화)이 열린 체제로 조직하고자 한 이유가 ‘한국적’이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그러한 논의를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고 못박는다. 『또 하나의 문화를 펴내며』, 『평등한 부모 자유로운 아이』, 또 하나의 문화, 1985, 12~28쪽. 또한 같은 책에 실린 『AWRAN의 지상논단』에서는 실제로 서구에서도 하나의 통일된 ‘서구적’ 여권운동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으며, 여성해방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등장한 비판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AWRAN의 지상논단』, 『평등한 부모 자유로운 아이』, 또 하나의 문화, 1985, 269쪽.

동과 그 출신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인들이 사회운동에 대거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이념지향성은 더욱 강화되고, 노동운동, 농민운동, 여성운동 등의 부문운동은 이념적 전체로 결합하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sup>19)</sup> 이처럼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 민주화 운동이 강화되고 조직화되면서 여성운동 내부에서도 민주화운동과 통합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sup>20)</sup> 이들은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서구에서 수입된 여성해방이론이 한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탈식민적 반성으로 나아간다.

비정기적으로 발행된 무크지 『여성』<sup>21)</sup>은 특집 기획을 통해 한국여성해방이론의 전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사회 전반의 구조적 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구여성해방운동의 제이론이 우리 현실에 맞지 않아서 여성운동주도권이 어용적 중산층 여성운동으로 변질되는 과정”(241)이 문제이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 해방이론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sup>22)</sup> 이는 한국의 여성해방이론은 서구와는 달라야 하며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의 자장 안에서 이루어져야

18) 오일환, 「1980년대 이후 한국 사회운동과 정치발전」,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1, 2000, 199~226쪽.

19) 박형준, 「전환기 사회운동의 성격」, 『오늘의 한국사회』, 사회비평사, 1993, 416~422쪽.

20) 조주현,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 80-90년대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2권, 1996, 138~179쪽.

21) 『여성』은 1985년의 1호 <허위의식과 여성의 현실>, 1988년의 2호 <변혁기의 여성들>, 3호 <한국여성의 노동현실과 운동>을 주제로 하여, 총 3번 발간되었다.

22) 『여성』에서 여성해방이론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요청한 이유는 1호에 실린 심정인의 「여성운동의 방향 정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200~255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정인은 해방 이후의 여성운동에 대해 친일파와 특권적 여성들의 여가 활용적 활동이며 개량주의적 경향의 여성운동세력에 의해 장악되었다고 평가절하한다. 이들은 유물론적 여성해방이론을 토대로, 한국의 여성해방운동의 뿌리를 근우회나 마르크스즘에서 찾으며, 여성평우회에 대해 강한 비판을 선포했다. “여성운동은 가부장제를 포함하여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 구조를 변혁하여 남녀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승희, 「한국여성운동의 현단계」, 『여성운동과 문학2』, 풀빛, 1990, 237~267쪽; 여성사연구회 편집부, 「한국 여성해방이론의 전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여성 2』, 창작사, 1988, 174~200쪽 등도 같은 의견을 내고 있다.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한국 현실에 맞는 여성해방이론은 그 뿌리를 전체 사회구조에 대한 개혁을 이야기하는 마르크스주의에 두고, 그에 따른 운동으로서의 번역을 기획한다.

1980년대 호황을 누린 사회과학 전문 출판사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번역서와 편역서를 통해 펼쳐낸다.<sup>23)</sup> 풀빛(3권), 동녘(4권), 백산서당(5권)<sup>24)</sup> 등의 사회과학 전문 출판사들은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과 아시아 지역의 여성해방에 관련된 여성해방이론서를 내놓는다.

저자	제목	역자	출판사	출판년도
마츠이 야요리	무엇이 여성해방인가	김혜영	백산서당	1981
로버타 해밀턴	여성해방논쟁	최민지	풀빛	1982
베벨	여성과 사회	선병렬	한밭출판사	1982
다나카 미치코	미혼의 당신에게	김희은	백산서당	1983
미즈다 타마에	여성해방사상의 흐름 *	김희은	백산서당	1983
앨리스 재거 편	여성해방의 이론체계	신인령	풀빛	1983
S. 화이어스톤	성의 변증법	김예숙	풀빛	1983
자레스키	자본주의와 가족제도	김정희	한마당	1983
엔겔스	가족의 기원	김대웅	아침	1985
클로디 블로이엘	하늘의 절반: 중국의 혁명과 여성해방	김주영	동녘	1985
여성평우회 편	제3세계 여성노동 *	여성평우회	창작과비평사	1985
안마리 울프 등 편	여성과 생산양식	강선미	한겨레	1986
타마키 하지메	세계여성사	김동희	백산서당	1986
C. 폰 벨로프 외	여성 최후의 식민지 *	강정숙 외	한마당	1987
베벨	여성론	이순예	까치	1987

23) 윤금선은 1980년대 독서경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70년대 후반부터 ‘번역물 붐’ 현상이 나타났으며, 특히 사회과학 단행본과 기획출판이 늘어났다고 지적한다. 특히 82년 2월 금서 조치가 대폭 해제되면서 이데올로기 관련 서적의 번역출판물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는 1980년대 중반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억제되기도 한다. 윤금선, 『1980년대 전반기 독서운동 사례와 독서경향 분석』, 『독서연구』 19, 2008, 229~277쪽.

24) 세 출판사는 번역서의 선정과 기획에 있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백산서당의 경우, 5권 모두 비교적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일본 서적이다. 풀빛의 경우, 여성해방이론의 체계를 잡는 데 도움을 주는 책들을 선정해서 번역하고 있다. 동녘의 편역서들은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을 뒷받침한다는 기획의도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지해 편	세계여성운동 1: 사회주의 여성운동 *		동녘	1987
김지해 편	세계여성운동 2: 민족해방 여성운동 *		동녘	1988
토너 외 편	클라라 체트킨 선집	조금안	동녘	1987
마르크스 외	여성해방론 *	조금안	동녘	1988
베벨	여성과 사회	정윤진	보성출판사	1988
하이디 하트만 외	여성해방이론의 쟁점: 사회주의 여성해방론과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 *	김혜경 김애령	태암	1989
레닌	레닌의 청년 여성론 *	편집부 편역	함성	1989

<표 2> 사회과학 출판사에서 나온 번역서 일람 (\*은 한국에서 만든 편역서)

위의 표에서 우선 눈에 띄는 점은 마르크스, 엥겔스, 베벨, 레닌 등의 사회과학 고전이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엥겔스의 『가족의 기원』(1884)이 최초로 완역되었으며,<sup>25)</sup>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이론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베벨의 Die Frau und der Sozialismus(여성과 사회주의)는 『여성과 사회』, 『여성론』 등의 이름으로 1980년대에만 세 차례 발간된다.<sup>26)</sup> 이는 1920년대 『부인론』<sup>27)</sup>으로 소개되었던 저작을 완역에 가까운 형태로 번역한 것으로, 『여성과 사회』가 과거와 현재 여성의 역사를 정리한 2부 15장까지, 『여성론』이 현재 여성의 지위와 사회적 상황에 관해 다룬 3부까지 다루고 있다.<sup>28)</sup> 번역자인 이순에는 “여성문제와 사회문제를 분리

25) 김대웅은 『독일 이데올로기』, 『변증법적 미학이론』, 『루카치』 등 독일 사회과학이론서를 전문적으로 번역하였으며, 역사후기에서 엥겔스의 고전이 번역됨에 따라 인류학, 사회학, 여성학 등 제 학문분야에 도움이 될 것을 희망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대웅, 『가족의 기원』, 아침, 1985.

26) 『여성과 사회』는 번역자의 이름과 출판사는 다르지만, 책 본문과 역사후기가 동일하다. 따라서 1982년 한밭출판사판과 1988년 보성출판사판이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27) <동아일보> 1925년 11월 9일자에 배성룡이 번역한 베벨의 『부인해방과 현실생활』(조선지광사)이 출간되었다는 신간 소개기사가 실려 있다. 식민지기 『부인론』의 수용양상에 대해서는, 홍창수, 『서구 페미니즘 사상의 근대적 수용 연구』, 『상허학보』 13집, 2004, 317~362쪽; 김양선,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소실화와 그 한계』, 『우리말글』 36집, 2006, 181~202쪽; 김경애, 『근대 남성지식인 소춘 김기전의 여성해방론』, 『여성과 역사』 12집, 2010, 111~149쪽 참고.

28)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도래할 미래의 여성에 대한 부분은 번역되지 않은 상태이다.

시켜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제거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데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점에서 『여성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여성문제를 심리학적, 생리학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여성문제와 사회문제를 분리시키는 ‘오류’라고 명명하고, 그 오류를 교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이는 급진적 여성해방론에서 주장하는 섹슈얼리티와 성차 문제를 의식한 것으로, 여성문제는 역사의 진보 관점에서 사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사회변혁의 관점에서 여성해방을 바라보는 1980년대 여성해방운동 진영은 마르크스에서부터 베벨에 이르는 고전들을 번역하고, 자본주의와 생산양식의 문제가 여성억압의 근원임을 강조했다. 이때 이들이 대타항으로 삼은 것은 1960~70년대 미국에서 출발한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이다.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이중체계론은 한국의 여성해방운동 진영의 방향성을 호도하며, 결국 미국의 급진적 여성해방주의를 따라가게 될 뿐이라고 지적한다.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이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을 협소한 의미로 해석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sup>29)</sup>

이러한 입장에서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은 편역서를 기획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편역서는 역자나 출판사의 기획의도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글을 묶어 편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레닌의 청년 여성론』은 히라이 키요시<sup>30)</sup>가 편역한 『レーニン 青年, 婦人論』(青木書店, 1956)을, 『여성해방론』은 100쪽 남짓한 팸플릿<sup>31)</sup>에서 중복된 부분을 편집하여 다시 만든 책이다. 이 두 권의 번역자 조금안은 서문에서

29) 강이수, 『불행한 결혼인가, 불가능한 결혼인가』, 『여성과 사회』 1호, 1990, 379~389쪽.

30) 平井潔, 1940~50년대 활발하게 저술활동을 펼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 『세계여성사』의 타마키 하지메와 함께 『새로운 여성독본』 출간.

31) *The Women Questions—selections from the Writings of Karl Marx, Frederick Engels, V. I. Lenin, J. V. Stalin*(International Publisher, 1982)와 *The Emancipation of Women from the Writings of V. I. Lenin*(International Publisher, 1984)

“마르크스주의적 여성문제 인식방법에 대해 독자들의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찾고 있다. “개량주의적 수정주의적 여권론자들”의 “왜곡 혹은 선입견이 통용될 수 있는 여성계의 현실”에서 마르크스주의를 소개하는 것만으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sup>32)</sup> 이러한 경향은 여타 편역서에서도 드러난다. “사이비 마르크스주의적 요소들을 척결하고 올바른 여성해방론적 인식의 기초를 다지려는 시도”<sup>33)</sup>라는 입장도 이에 속한다. 즉 개량주의나 사이비 마르크스주의적 요소를 경계하는 것을 통해서 마르크스주의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시도이다.

또한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미즈다 타마에의 『여성해방사상의 흐름』<sup>34)</sup>의 역자인 김희은은 “지금까지 여성해방을 다룬 이론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여성문제들의 한 부분만을 확대해석하거나, 여성지상주의적인 분파적 경향을 띠기도 하여 본질적인 모습을 과해쳐 주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예가 많았다”고 지적한다. 『세계여성운동』의 편자인 김지해 역시 미국의 이중체계에론에 대해 “제국주의의 이익에 봉사하면서 제3세계 여성운동의 혁명성을 왜곡 축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비판한다.<sup>35)</sup> 즉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을

32) 조금안, 『여성해방론』, 동녘, 1988, 4쪽.

33) 『여성해방이론의 쟁점』의 역자인 김혜경과 김애령은 번역의 목적이 ‘유사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인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이론적, 실천적 오류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미국의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자인 하이디 하트만, 질라 에이젠슈타인의 논문과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자인 린다 변햄 등의 논문을 비교하면서,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도입과 그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이라는 순서에 따라 책을 구성하고, 번역한 것이다. 즉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을 사이비로 호명하고, 진정성이 있는 운동론의 대중적 확산을 겨냥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4)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 여성해방사상의 역사를 정리한 편역서이다. 저자인 미즈다 타마에의 두 권의 저서를 한 권으로 합친 이 책은 서양 근대 사상의 출발점인 루소에서부터 시작하여 계급구조와 가족구조를 분석한다.

35) 김지해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르조아여권운동의 사상적 원천에 대해서는 소개가 되었으나 사회주의 여성운동, 민족해방여성운동에 대한 소개는 전무한 편이기 때문에 19세기말 20세기초를 풍미했던 사회주의 여성운동을 소개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제외한 여타의 여성해방론은 부르주아적이며, 일부 여성들을 위한 것인 반면,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은 전체 여성의 해방을 도모한다는 이분법적 입장이다.

이처럼 1980년대 운동 진영의 번역작업은 편역서를 통해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의 총체적, 진보적 의식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두드러진다. 부분적, 분파적인 유사 마르크스주의를 경계하고 총체적이고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을 소개함으로써, 서구의 여성해방이론과 다른 한국의 여성해방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번역자와 출판사는 모두 기획자가 되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번역행위를 실천한다. 엄격한 윤리성과 진정성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데올로기의 순수성과 윤리성이 도달하는 지점은 결국 마르크스와 엥겔스, 레닌의 유물론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지적 제국이다. 영미의 여성해방이론으로 인해 생겨난 식민성을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으나, 또 다른 제국에 의지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마르크스주의라는 또 하나의 보편을 획득하기 위한 기획 속에서 탈구된다.

#### 4. 민족해방 운동으로서의 여성해방운동과 ‘제3세계’의 기획

198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사회운동 진영에서는 민족문제가 본격화된다. 이는 여성해방운동 진영에도 영향을 미친다. 1985년에 치러진 제1회 3.8 여성대회는 “민족 민주 민중과 함께 하는 여성운동선언”을 표어로 삼았고, 여성연합은 『민주여성』5호에서 “민족민주 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을 강조하기도 하였다.<sup>36)</sup> 이러한 흐름은 번역서로 이어져, 제3세계의 민

36) 여성 3호(1989)는 ‘민족민주운동과 여성운동’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 당시 여연의 부회장이었던 이미경이 참석하여, “여연 출범시 자체내에서 단순히 남녀간의 지위개선문제에 집중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의 사회구조적 문제의 근본인 민주화 자주화 문제 해결에 여성들이 역사의 주체로서 참여해야 한



족해방운동을 소개하며, 그 속에서 여성운동의 양상을 조명하는 책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영미권의 백인 부르주아의 ‘제2의 물결’이 아닌, 우리와 조건이 유사한 아시아의 민족해방투쟁의 여성영웅을 호명하고 그들을 통해 여성해방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려 시도한 것이다.

『세계여성운동2: 민족해방 여성운동』은 “85년 말 이후 민족해방의 문제가 투쟁의 주요 흐름을 잡게 되면서 제3세계라는 비과학적 개념을 넘어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문제, 그것을 극복하려는 민족해방투쟁의 문제로서 여성운동을 새롭게 기획 재조정”하였다는 목표를 밝힌다. 이를 위해 중국, 베트남, 쿠바의 민족해방투쟁의 승리와 아프리카의 무장투쟁 등을 소개하면서, ‘페미니즘은 미국과 서구 유럽의 여권주의라는 협소한 개념이며 사회주의 여성운동을 건설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세계는 미국과 서구 유럽/아시아, 아프리카로 이분된다.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 아래서, 한국을 비롯한 제3세계는 서구라는 외부의 적대를 통해 내부를 단결시킨다. 그리고 이때 하나의 공동체를 상상하게 해주는 것은 “끈끈하고 벽찬 감동”, “아프리카 오지의 나이 어린 흑인여성들의 해방의 필연성을 넘어선 가슴 뿌듯한 신념”의 서사이다. 여성수난사가 “여성대중에게 변화의 신념”을 심어주는 이야기로 재명명되어 감동적인 사례로 전형화되는 것이다.

이 ‘벽찬 감동’의 서사는 여성운동가의 수기와 전기를 통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성』의 2호는 제3세계 여성운동가의 삶을 다룬 수기 『아리랑 고개의 여인』, 『어머니들』과 소설 『사이공의 흰 옷』을 ‘여성문제의 인식을 돕는 책들’<sup>37)</sup>로 선정한다. 이 세 권의 번역서는 평범한 여학생

---

다.”는 입장을 세웠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이것이 88년 ‘분단’ 올림픽 개최와 미국의 수입개방 요구 등과 맞물려 다시 한 번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고 대답한다. 『민족민주운동과 여성운동』, 『여성』 3호, 1989, 25~31쪽.

37) 선정된 책은 다음과 같다. 고준석, 『아리랑 고개의 여인』, 유경진 역, 한울, 1987; 구엔 반봉, 『사이공의 흰 옷』, 친구, 1986; 도미틸라(구술), 모에마비치(기록), 『어머니들』, 정순이 역, 한마당, 1986; 앵겔스, 『가족의 기원』, 김대웅 역, 아침, 1985; 필립 S 포너, 『클라라 체트킨 선집』, 조금안 역, 동녘, 1987; 벨로프, 『여성, 최후의

이나 아내들이 사회의 부조리를 자각하고 의식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통해 계급승리와 민족해방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시도한다.

『아리랑 고개의 여인』의 작가 고준석은 해방정국의 혼란기에서 공산당 활동을 하다 죽은 아내 김사임을 위로하기 위해 책을 썼다고 밝힌다. 이를 위해 책의 화자인 고준석은 자신의 아내를 순수한 소녀에서 조국의 열사로 변모하는 영웅으로 이상화한다. 부르조아 여학생이었던 김사임이 공산주의자였던 고준석을 만나 현실에 눈뜨고, 철저한 한 사람의 공산주의자가 되는 과정을 ‘아리랑 고개의 여인’으로 형상화하는 것이다. 이때 흰 한복을 입고 아이를 업은 채 사살당한 김사임은 ‘아리랑 고개’가 상징하는 순결한 민족의 상징이 된다.<sup>38)</sup> 통일을 위해 노력하던 공산주의자 여성의 비극적 최후를 통해 “한민족의 통일과 민족정신”을 일깨우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사이공의 흰 옷』<sup>39)</sup>은 실존 인물인 응웬 디 짜우를 모델로 하여, 여성 주인공이 공산주의의 투사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조국의 ‘진정한’ 독립과 자유를 위해 남베트남 학생운동과 공산당 활동에 참여하고, “체포와 가혹한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더욱 강고하고 성숙한 운동가로 변모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모든 안일한 삶에 도덕적 질타”를 던지고자 한다는 것이 이 책의 간행 목적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흰 옷으로 표현되는 베트남 민중의 조국과 민족, 혁명에 대한 단심(丹心),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베트남 여성들의 순결”<sup>40)</sup>이다. 『사이공의 흰 옷』에서 흰 옷

식민지, 강정숙 외 역, 한마당, 1987; 사피오티, 『산업사회의 여성』, 김정희 역, 일월서각, 1986; 울프 쿤, 『여성과 생산양식』, 강선미 역, 한겨레, 1986; 김지혜 편, 『세계여성운동 1: 사회주의 여성운동 편』, 동녘, 1987; 타마키 하지메(玉城肇), 『세계여성사』, 백산, 1986 등의 총 10권이다.

38) 김사임이 여성해방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몇몇 장면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화자인 남편 고준석은 아내가 당활동을 위해 나가는 것도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여길 만큼, 여성해방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대도 형성하고 있지 않다.

39) 원제는 Ao Trang으로 베트남 여성이 입는 흰 색 전통의상을 지칭한다. 실존 인물인 작가의 이름인 응웬을 구웬으로 번역할 만큼 베트남 문화나 언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2006년 동녘에서 『하얀 아오자이』라는 이름으로 재출판된 바 있다.

과 여성의 순결은 공적 영역의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의 사랑에서도 강조된다. 흥은 공산주의자로서 눈을 뜨며, 그와 동시에 훌륭한 운동가이자 지도자인 호앙을 사랑하게 된다. 사상과 사랑은 동심원을 이루며 여주인공에게 ‘순결’을 요구한다. 호앙이 사랑하는 ‘흰 아오자이를 입고 자전거를 타는’ 순결한 사이공 여학생일 때만, 여성은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볼리비아 광산 노동자 투쟁에 대한 수기인 『어머니들』은 74년 UN 세계여성대회에 참가한 여성노동자 도미틸라와 브라질 여성학자인 모에마 비치가 만나 구술기록한 것이다. 도미틸라는 볼리비아에 참된 민주정부를 세우기 위해, 지금은 남성들과 함께 투쟁해야 한다고 말한다. 노동자의 아내인 여성들 역시도 투쟁의 일선에 나서 “남자들과 같이 민중해방을 위해 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그녀의 입장이다. 따라서 민중을 남녀의 성에 따라 나누는 것은 “제국주의의 무기”가 된다.<sup>40)</sup> 성별보다는 ‘민중’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의 본래 목적은 하위주체인 민중의 목소리를 기록한다는 데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미틸라는 목소리를 갖지 못한 볼리비아 민중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대표자로서 UN 발언대에 선다. 그녀는 백인/부르조아 페미니스트들에게 분노하며, 자신의 발언권을 확보한다. 이는 이 책의 원제가 “나도 한 마디 해도 된다면”이라는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국어로 번역되

40) “그것은 어떠한 혹독한 고문에도, 주위의 타락에도 꺾이거나 물들지 않고 싱싱하게 꽃피는 청순함이며 젊은 세대의 애국심과 건전함이 부르는 승리의 찬가이다.”(247) “그들이 십수년에 걸치는 투쟁속에서 가꾸어온 애정의 결말은 흰 아오자이를 입고 머리카락을 뒤로 묶은 흥이 땀뻑하게 호앙과 팔짱을 끼고 모교 반량 고등학교를 방문해 후배들의 열렬한 환영과 축복속에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었다 한다.”(248)

41) “그렇다고 해서 남성 위주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바로 그것이 제국주의의 무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성 존중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투쟁은 각 성이 대결하는 차원에서보다는 부부가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86~287) “『나도 한 마디 해도 된다면』은 바로 민중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287)

는 과정에서 제목은 ‘어머니들’로 바뀐다. 억압받는 노동자의 부인이라는 하위주체의 정체성이 어머니로 전치된 것이다. 이는 번역자의 의도를 반영한다. 투쟁하는 ‘어머니들’에 대한 ‘존중’<sup>42)</sup>, 이것이 한국사회에서 이 책을 번역한 목적이자 소비하는 방식이다.

구엔 치 프엉이나 도미틸라, 김사임과 같이 민족해방운동에 참여한 여자 공산주의자의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벽찬 감동’을 주고 ‘뿌듯한 신념’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민족해방이라는 목적에 봉사하는 도구가 된다. 이들은 여성억압의 원인이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결합에 있기 때문에, 민족해방투사나 공산주의자 역시 여성해방의 투사라고 주장한다. 책의 광고와 헤드라인은 공산주의자로서 이들의 강건한 투쟁의 자세를 주장하지만, 책이 재현하는 것은 흰 옷을 입은 순결한 누이와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하는 어머니, 아리랑 고개에서 죽은 아내이다. 여성 투사들을 누이, 어머니, 아내 등 가족 구성원의 일부로 호명하여 감동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영웅 서사는 여성수난사로 굴절된다.

제3세계는 이데올로기 혁명과 투쟁이 있는 ‘순수한’ 공간이라는 제3세계의 기획은 순결한 여성을 민족으로 치환할 때 가능해진다. 탈식민적 시도가 1세계와 3세계를 이항대립적 구도에 배치하여 민족주의로 소급되는 것이다.<sup>43)</sup> 이 과정에서 제3세계는 순결한 여성이 있는 이상향으로 자리매김하고 1세계에 대한 민족적 우월감을 획득한다. 그렇다면 이때 제3세계의 순결하지 않은 여성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할 필요가 있다. 순결한 여성들은 누이, 어머니, 아내로 명명된다. 가족의 이름 아래에서 이데올로기의 순수성을 담보할 때에만 여성은 민족과 해방의 상징이자 감동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양공주와 같이 정상 가족 바깥의, 순결하지 못한 여성은 영웅서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결국 여성 영웅의 주체성은 이데올로기의 대상으로 환원될 때에만 의미를 획득한다는 역설을 마주하

42) 또한 이 책은 페미니즘(feminismus)을 ‘여성 존중주의’로 번역하고 있기도 하다.

43) 호미 바바, 위의 책, 336쪽.

는 것이다.

## 5. 맺음말: 여성해방운동의 (탈)식민성

1980년대 여성해방운동은 서구의 여성해방이론을 참조하여 여성해방이라고 하는 보편성의 이념을 번역한다. 그런데 이 번역 과정에는 ‘한국’이라는 특수성이 포함되지 않을 수 없다. 번역에는 항상 모방과 오염의 가능성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2의 물결’을 번역하면서 탈식민적 고민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한국의 여성해방운동은 서구와 어떻게 다르며,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상을 그리는 것이다. 이때 여성억압의 기원을 밝히고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번역서가 활용된다. 가벼운 에세이부터 마르크스, 레닌에 이르기까지 여성해방운동은 번역서를 통해 자신의 이론적 몸피를 불러나가는 것이다.

교양교육 운동으로서의 여성학은 여성의식의 각성과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에세이들을 선택하여 학습자의 저변을 확대하였다. 계급 운동으로서의 여성해방운동은 마르크스주의를 기반으로 한 편역서를 통해 영미권의 여성해방이론을 배격하고 ‘진정한’ 인간해방을 주장하였다. 또한 민족해방 운동으로서의 여성해방운동은 제3세계의 해방을 위해 투쟁한 여성 영웅들의 서사를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기도 하였다. 번역서를 편집, 기획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 적극적 번역 행위를 실천한 것이다. 이때 번역은 원본과 번역본이 뒤섞이고, 수신자인 한국이 오히려 발신자의 위치가 되는 역전과 전위의 공간이 된다. 이처럼 1980년대 여성해방운동은 적극적 행위와 실천의 담론으로 이야기될 수 있다.<sup>44)</sup>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데올로기의 순수성이 강조되면서, 문제는 출발점으로 되돌아간다.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순수한 제3세계에 대한 강조와

44) 조주현, 『대학여성학 과목분석을 통해 본 한국 여성학 현황과 전망』, 『사회과학 논총』 15집, 1996, 259~274쪽.

전형화가 진정성과 유사성, 원본과 사본, 발신자와 수신자의 이분법적 틀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이는 혼종성을 이데올로기의 순수성으로 봉합하여 또 다른 보편을 형성하려는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아시아 여성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보편성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것일 뿐, 특수성과 보편성의 대립구도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따라서 1980년대 여성해방운동의 탈식민적 혼종성은 식민의 구도 안으로 돌아온다. 이는 1980년대 여성해방운동이 도달하고자 했던 근본적인 목표, '인간화'를 이룰 수 없게 만든다는 역설을 낳는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출판물 총목록』, 1980~1990.  
김지해 편, 『세계여성운동 1』, 동녘, 1987.  
\_\_\_\_\_ 편, 『세계여성운동 2』, 동녘, 1988.  
여성편집위원회, 『여성』 1~3, 창작사, 1985~1989.  
크리스찬아카데미 편, 『여성문화의 도전』, 삼성출판사, 1975.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관련문헌종합목록』, 1988.  
\_\_\_\_\_, 『여성관련문헌해제서지 1945-1984』, 1985.  
\_\_\_\_\_, 『여성연구』 1984년 겨울호.  
한국여성연구회 문학분과, 『여성해방문학의 논리』, 창비, 1990.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1~3집, 1985~1987.  
다나카 미치코, 『미혼의 당신에게』, 김희은 역, 백산서당, 1983.  
C. 다울링, 『신데렐라 콤플렉스』, 홍수원 역, 우아당, 1982.  
레닌 외, 『여성해방론』, 조금안 역, 동녘, 1988.  
마츠이 야요리, 『무엇이 여성해방인가』, 김혜영 역, 백산서당, 1981.  
M. 미드, 『남성과 여성』, 이경식 역, 범우사, 1980.

A. 베벨, 『여성론』, 이순예 역, 까치, 1987.

F. 엥겔스, 『가족의 기원』, 김대웅 역, 아침, 1985.

하트만 외, 『여성해방이론의 쟁점』, 김애령 외 역, 태암, 1989.

## 2. 단행본 및 논문

강이수, 『불행한 결혼인가, 불가능한 결혼인가』, 『여성과 사회』 1호, 1990, 379~389쪽.

김경애, 『근대 남성지식인 소춘 김기전의 여성해방론』, 『여성과 역사』 12집, 2010, 111~149쪽.

김양선,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소설화와 그 한계』, 『우리말글』 36집, 2006, 181~202쪽.

김영희, 『여성문학론의 비판적 검토』, 『창작과 비평』 1988년 가을호, 188~205쪽.

김혜정, 『독서대중화 운동의 역사적 전개과정 검토』, 『독서연구』 27, 2012, 9~41쪽.

서광선, 『한국여성연구원, 그 출발 이전과 이후: 한 증언』, 『한국여성연구원 30년: 1977-2007』,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08.

민족민주운동연구소 여성분과, 『80년대 여성운동과 90년대 여성운동의 전망1』, 『정세연구』 9호, 1990, 97~106쪽.

\_\_\_\_\_, 『80년대 여성운동과 90년대 여성운동의 전망 2』, 『정세연구』 10호, 1990, 46~75쪽.

박형준, 『전환기 사회운동의 성격』, 『오늘의 한국사회』, 사회비평사, 1993, 416~422쪽.

오일환, 『1980년대 이후 한국 사회운동과 정치발전』,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1, 2000, 199~226쪽.

윤금선, 『1980년대 전반기 독서운동 사례와 독서경향 분석』, 『독서연구』 19, 2008, 229~277쪽.

이나영, 『급진주의 페미니즘과 섹슈얼리티』, 『경제와 사회』 82호, 2009년 여

름호, 10~38쪽.

이순예, 『여성문학의 흐름과 쟁점』, 『여성운동과 문학2』, 풀빛, 1990, 268~292쪽.

이승희, 『한국여성운동의 현단계』, 『여성운동과 문학2』, 풀빛, 1990, 237~267쪽.

이명호 외, 『미국 여성비평의 전개과정』, 『세계의 문학』 1988년 봄호, 268~300쪽.

조주현, 『대학여성학 과목분석을 통해 본 한국 여성학 현황과 전망』, 『사회과학 논총』 15집, 1996, 259~274쪽.

\_\_\_\_\_,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 80~90년대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2권, 1996, 138~179쪽.

조 형 외, 『또 하나의 문화를 펴내며』, 『평등한 부모 자유로운 아이』, 또 하나의 문화, 1985, 12~28쪽.

\_\_\_\_\_, 『AWRAN의 지상논단』, 『평등한 부모 자유로운 아이』, 또 하나의 문화, 1985, 266~275쪽.

홍창수, 『서구 페미니즘 사상의 근대적 수용 연구』, 『상허학보』 13집, 2004, 317~362쪽.



**Abstract**

1980's Women's liberation movement in Korea  
and the Paradox of translation

Heo, Yun

This article aims for understanding the paradox of 1980's Women's liberation movement(WLM) in Korea through the eye of translation. 1980's WLM in Korea was influenced by "The Second Wave" of the west civilizations. But it was also the denial other. This ambivalence deepens the post-colonial researches in 1980's feminism. In this circumstances, the translation of feminism theory became the mimicry, contamination, and the place of hybridity where the new political possibility could happen.

At first, the women's study in the Department of liberal arts courses used translated books to awaken the learners. These books were essays that were easy to read and understand. Sometimes, WLM became the editor of translated books. With the flow of Democratic movement and People's liberation movement, the 1980's translation of feminism theory focused on the Marxim. They performed an active role in society and made new political changes. They chose the articles to be translated and edited. They tried to produce the Korean WLM and obtained the subjectivity during the passage of translation. The location of sender-receiver was displaced. However, the activists drew a firm line between the "real" and "pseudo" feminism. This attempts preserved the dichotomy of the original and the copy. So the revolutionary

dislocation of translation regressed to the colonialism.

Key words : 1980's feminism in Korea, the Second Wave, translation, hybridity,  
Women's Liberation Movement

- 본 논문은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28일에 게재 확정되었음.